

뜻깊은 만남 ... 진리의 말씀 화폭에 담는다 ... 색깔있는 전시

2015
미리 보는
불교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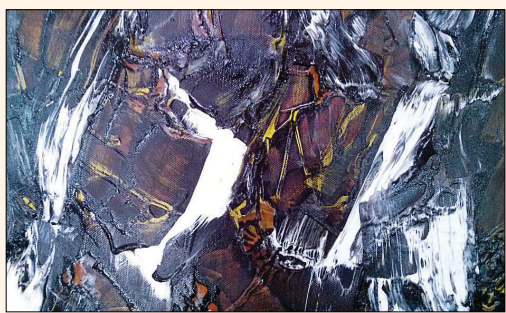
2015년 올 한해 볼만한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 한 해도 불자들을 감동시킬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된다. 비공 스님 선화전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마련전, 부디스토리의 사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 전시, 아라 스님의 부산 쿠무다 카툰전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를 한데 모았다.

1월 - 비공·원웅 형제스님 작품 한자리에

평창동 금보성아트센터(구 김홍수 미술관)에서는 1월 24~30일 두 개의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비공 스님의 '비움의 선면전'과 원웅 스님(촉불 재선원장)의 개인전이 함께 열린다. 두 스님은 속가의 친형제 사이로 나란히 전시를 열어 눈길을 끈다.

비공 스님은 선과 면을 활용한 그림으로 그동안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지만 원웅 스님은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선방수좌로 살아온 형 원웅 스님과 선화가 비공 스님의 그림을 나란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비공 스님은 2월 25일부터 인사동 박은선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갖는다.



4월 - 동행,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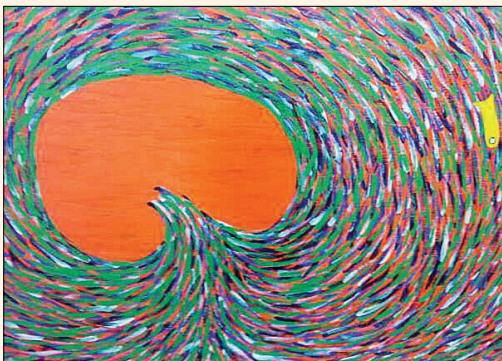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앞둔 4월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탐자나 농업 기술학교 건립 사업을 위한 나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조계사 직장직는 전법단은 4월 2일~7일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2014년 한국문화재단 대상을 받은 최효임 씨(직장직는전법단 자원위원)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익금은 아름다운 동행에 후원한다.

이어 아름다운 동행 역시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연다. 스님들과 불화가들의 작품을 기부 받아 4월 20일~25일 조계사 나무 갤러리에서 전시를 갖는다.



5월 - 성륜 스님 선화전 '소요유'



선화가 성륜 스님은 5월 20일~29일까지 윤갤러리에서 개인전 '소요유'를 연다. 물고기의 움직임을 통해 선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25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소요유는 원색적인 색깔을 활용한 유유자적한 삶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보여준다. 뉴욕과 파리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전시는 국내 관람객들에게도 성륜 스님의 '소요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월 - 페미니즘 주제 '불화' 인도네시아서

젊은 불화작가들의 모임 부디스토리는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사카디타 세계여성불교대회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권지은, 김민지, 김윤정, 서혜진, 신지영, 예상희, 오선혜, 이혜원, 정해진, 출탐늘부, 현승조, 호종현 12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부디스토리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여성성을 강조한 불교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비구니 스님 체험 등 부대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7월 - 불자작가 임무상 화백 프랑스전

프랑스 이태리 중국 등 해외전시를 통해 호평을 받고 있는 임무상 불자 화백은 프랑스 브레타뉴 퐁테홀에서 7월 27일~8월 2일 초대전을 갖는다. '해송'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서양 해송을 작품으로 펼쳐낸 30여점을 선보인다.

또한, 삼성미술관 리움은 '세밀가귀 한국미술의 품격'전을 갖는다. '아미타삼존도', '청동은입사 보살당초봉황문합' 등을 선보인다.



8월 - 지찬 스님 부산서 카툰의 향연 펼쳐

여러 지찬 스님은 8월 19일~9월 18일 부산 송정 북카페 쿠무다에서 전시를 갖는다. 불교 카툰으로 포교에 나선 지찬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전시 여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카페 쿠무다는 주석 스님이 운영하는 북카페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9월 - 국립중앙박물관 고대불교 조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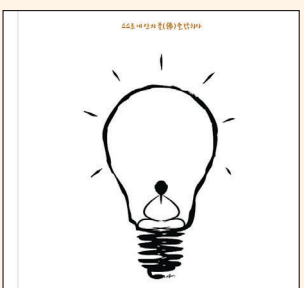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개관 10주년을 맞아 고대불교 조각대전을 9월 개최한다. 중국 한국 일본의 고대 불교조각 150점을 모은 대규모 특별전으로,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4세기 후반의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해 대영박물관, 베를린 동아시아박물관, 도쿄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의 대표 명품을 선보인다.

10월 - 김용덕 작가 불교 일러스트 전시

영담 한지박물관 관장 영담 스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와이파이어 전시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스님은 우리 한지로 만든 작품 24점을 전시해 해외 관람객들에게 한지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 나간다.

오재현 작가 역시 10월경 조계사 국제축제와 더불어 전시회를 갖는다. 미륵불 등 총 15점의 작품을 전시 조계사 국화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심의 향기를 전해준다.

김용덕 작가(불교일러스트연구소장)도 10월경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내 스스로 내 안의 불을 밝히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반야심경 12품의 단색 그림에 글귀를 넣는 등 총 30여 점의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인다.



정혜숙 기자

“세상 통섭하는 불교의 이상 시에 담아내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유심> 복간 15주년 맞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발행하는 시전문 월간지 <유심>(주간 홍사성)이 복간 15주년을 맞았다. 1918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했지만 3회 발행으로 그쳤던 유심은 신

호사 조실 오현 스님의 발원으로 2001년 복간했다. 계간에서 격주간, 월간으로 발행 주기를 늘리며 2015년 1월 현재 81호를 발행, <유심>은 복간 15년 만에 국내 시전문지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한국 시문학을 이끄는 대표 잡지로 발돋움했다.

<유심>은 불교단체에서 발행하지만 불교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홍사성 주간 <사진>은 “1918년 창간 당시에는 시사 불교 잡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복간하면서는 시전문 잡지를 표방했다. 그 이유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앞서 <불교평론>을 발행했기에 <유심>은 시를 통해 종교, 인종, 이념을 뛰어넘어 세상을 통섭하는 불교의 이상

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유심은 기존 시전문지의 구성 형식을 탈피, 다양한 기획과 색선으로 독자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해 왔다. 홍 주간은 “6.25특집으로 ‘북으로 간 시인, 남으로 간

다양한 기획 ‘시읽기의 즐거움’ 선사
국내 시전문지 중 최대 부수 발행
신인상공모 등 시 저변 확대에 최선

시인’ 가정의 달 특집 ‘아버지를 그리워하다’ 등 다양한 기획을 해왔다. 이는 많은 독자들이 시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의도가 담겼다”며 취지를 설명

했다. 앞으로도 유심은 ‘한국 여성 시단을 개척한 시인’ 등 흥미로운 기획을 통해 독자들에게 시의 감동과 새로운 정보는 물론 잡지를 읽는 즐거움을 전해주고자 한다.

또한 잡지의 첫 코너에는 ‘유심이 주목하는 젊은 시인’을 배치, 젊은 시인들의 문학적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품상 시상, 신인상 공모, 아카데미 및 창작교실 운영 등을 통해 시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유심 작품상은 현재까지 40여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유심 신인상 공모를 통해서 60여 명의 신인을 배출했다. 오세영 시인이 운영하는 시창작교실과 홍성란 시조시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역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시 전문지 <유심>이 복간 15년을 맞았다. 1918년 만해 스님이 창간했지만 3회 발행으로 그쳤던 <유심>은 신홍사 조실 오현 스님의 발원으로 2001년 복간했다.

현재 30회에 이르는 유심 문학토크도 주목할 만하다. 매일 김남조, 유종호, 황동규, 신경림 등 유명 시인들을 초대 문학 토크쇼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홍 주간은 “김지녀 시인이 진행하며 독자를 대신해 묻고 초대된 시인들이 답하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다음 호 <유심>에 실어 재미를 더했다”며 “올해부터는 형식을 바꿔 두 달에

한번씩 진행하는데, 1월 달에는 이근배 시인이 초대됐다”고 귀띔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 유심은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시를 통해 세상을 아우르는 작품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